

중세스페인어의 좌측주변에 관한 연구*

신태식

고려대학교

신태식(2023), 중세스페인어의 좌측주변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1), 1-26.

초록 절의 좌측주변에 대한 분석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Rizzi(1997)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이 연구들의 성과 덕분에, Top, Foc, Q 등과 같은 일련의 기능 범주들이 연산 과정을 통해 절의 좌변에 담화 역할에 따라 수의적으로 매핑되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에서도 이러한 담화 기능들이 특정 어순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중세스페인어의 자료 검색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CI+T] 형태의 접어 대명사를 포함한 어순은 중세와 현대스페인어에서 무표적이고 경제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어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구조에서 벗어난 어순을 담화 관련 도출에 따른 결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중세스페인어의 절 구조에 Rizzi의 기준적 배치 구조 이론을 적용할 것이며, 중세와 현대스페인어에서 접어 대명사와 좌변으로 이동한 문장 성분들이 보여주는 어순의 차이는 두 시대 사이에 매개변인화한 담화 관련 기능 범주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보여줄 것이다.

핵심어 좌측주변, 접어 좌향 전위, 주제, 초점, 중립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51580).

I. 중세스페인어 어순의 다양성

스페인어사를 살펴보면, 12세기 말과 13세기 초부터 카스티야어로 된 온전한 글이 등장한다. 이러한 시작은 Alfonso X(1252-1284) 시대에 설립된 번역학교(Escuela de traductores)가 아랍어나 라틴어를 카스티야어로 번역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이나 정자법 등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세기 말 국토회복전쟁(Reconquista)의 종결 이후에는 카스티야어가 이베리아반도에서 표준어의 지위를 얻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세 시대인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여 해당 시기에 사용된 카스티야어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시기의 텍스트에서 발췌한 문장과 현대스페인어를 비교 분석하며 연구할 것이다.

좀 더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히자면, 중세스페인어와 현대스페인어에서 분명한 어순의 차이를 보이는 시제 동사(TP)의 좌측 주변(left periphery, 좌변)을 다룰 것이다.

중세스페인어에서 TP의 좌변에 나타난 문장요소들의 용례는 그 수가 너무나 많다. 현대스페인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장의 좌변에 나타난 요소들이 간접 목적어나 직접목적어이면 일반적으로 접어 대명사의 복제 현상(reduplication)¹⁾과 함께 나온다. 이런 좌향 전위 구문(Clitic Left Dislocation)을 중심으로 접어 대명사가 나오는 용례를 찾아보니 그 빈도 또한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VP+Infn]의 복합 동사구문에 나오는 접어 대명사와 그 좌변에 나오는 문장요소들을 포함한 용례를 중심으로 중세스페인어의 좌변을 분석하고자 한다.

[VP+Infn]의 복합 동사구문에 나타난 접어 대명사의 위치에 따른 좌변 어순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다.

1) 심상완(2019)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치된 직·간접 목적어와 동일한 ϕ -자질(성과 수 자질)과 격 자질을 공유하는 접어 대명사에 대한 용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 a. *A nuestros amigos bien les podedes dezir.* (1140)²⁾
- b. *Ellos quisieran le descobrir de grado la uoluntad del rey* (1270)
- c. *Y si alguna cosa destas la natural necesidad les fuerza a hacer,* (1499)
- d. *Ca çierto cred que del día que lo omne comiença a beuer fasta que muere,* (1327)
- e. *que lo nuestro tenémoslo en salvo.*(1240)

예문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세 시대에는 TP의 좌변에 다양한 형태의 문장요소가 나타나며, 접어 대명사 또한 현대에서와는 다르게 비문법적인 위치에 나타나기도 한다. Rivero(1986)에 따르면, 중세의 접어 대명사는 구(phrase)이기 때문에, 형태 통사적으로 동사와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고, 동사 이외의 다른 문장성분에도 후치하지만, 현대의 접어 대명사는 핵(nucleus)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에 전치나 후치한다고 한다. 그녀가 제안한 분석에서의 모순은 중세스페인어에서 접어 대명사가 (1a)에서는 핵이어야 하지만, (1d)에서는 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예문 (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세와 현대의 접어 대명사 현상이 어순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요인이 접어화가 핵과 구의 투사범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중세의 접어 대명사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핵의 본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현대 접어 대명사와 다른 어순의 위치는 중세스페인어 구조 내의 좌변의 특수성에서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시대의 접어 대명사의 위치의 차이는 문장 구조 내에서 작용하는 매개변인의 값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단계에서, TP의 좌변에 동사구나 명사구, 부사구, 접어 대명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용례에 따라 분류하다 보면, Rizzi(2014b)의 기준적 배치(criterial configuracion)에

2) 본 연구에서 인용한 중세스페인어 문장들은 CDH(El corpus del Nuevo diccionario histórico del español)의 디지털 데이터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그 문장이 쓰인 해당 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rae.es/banco-de-datos/cdh>

이르게 된다. 그에 따르면, TP의 좌변을 의미 해석과 담화에 관련된 기준적 위치로 정하고, 모든 비 논항이동의 연쇄는 이 위치로 이동한 후에 핵과 지정어의 관계를 통해 기준적 배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문장요소는 이 위치에서 이동을 멈추게 된다.³⁾

본 연구는 Rizzi의 기준적 배치구조에 근거하여, 중세와 현대의 접어 대명사와 좌변으로 이동한 문장 성분들이 보여주는 어순의 차이는 두 시대 간 매개변인화된 기준적 배치에 기인한다는 것을, 담화 역할에 따라서 용례의 절 구조들을 도출하면서 논증할 것이다.

II. 중세스페인어의 좌변

절의 좌변에 대한 분석은 1990년대 중반부터 Rizzi(1997)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 흐름의 성과로 Top, Foc, Q, 등 일련의 기능 범주가 절의 좌변에 수의적으로 매핑(mapping)되는 연산 과정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고, Chomsky(2001)은 이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주변 자질들(edge feature, EF)로 인해 국면에서 필연적으로 D-효과(discourse effect)를 유발한다고 제안하였고, 더 나아가 2005년에는 모든 비 논항이동은 국면 핵의 EF에 의해서 유인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도 중세와 현대스페인어가 보이는 어순의 차이를 절의 좌변에서 병합되는 기능 범주의 차이에서 찾을 것이다. 그리고 중세스페인어의 자료 검색을 통해 직관적으로 획득한 사실은 [CI+T] 형태의 접어 대명사를 포함한 어순은 중세와 현대스페인어에서 무표적이고 경제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어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 기본 틀을 벗어나는 어순은 담화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산 과정으로 분석할 것이다.

- (2) *et sabíala tan bien mostrar a los que se pagavan de estar a la sombra del su árbol*, (1325)

3) Criterial Freezing(Rizzi 2014b): A phrase meeting a criterion is frozen in place.

위의 예문에서 연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정한다면 그 도출의 전 단계는 아래와 같다.

(3) [sabía, [_{TP} la t, tan bien mostrar a los que se pagavan ...]]

본 연구는 [CI+T] 형태의 좌변에 나타나는 문장요소에도 위와 같은 연산 과정을 적용하여, 중세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좌변의 문장 성분들을 접어 대명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동한 문장요소들이 할당받은 담화 기능을 파악하며, 절의 좌변의 매개변인의 값의 차이에 비추어 어순의 차이를 밝혀낼 것이다.

1. 담화에서의 주제(TopP)

시제 동사의 앞에 나오는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명사구가 복제된 접어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면, 담화 구조적으로 주제(topic)⁴⁾로 분석한다. 따라서, 모든 좌향 전위한 명사구가 이런 통사적인 위치와 형태를 갖추고 복제된 접어 대명사와 동시에 나타난다면, 해당 명사구가 주제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4) a. *Al rey Yúceftres colpes le ovo dados*, (1140)
b. & entendieron que *aquello* Julio Cesar *lo* auie castigado. (1270)

복제된 접어 대명사를 가진 좌변에 전치된 명사구에 대해서 Cinque(1990)는 주절이든지 종속절이든지 이런 종류의 명사구가 도출되는 고유한 위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전치된 명사구는 TopP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절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문(4a)과 같은 주절에서는 이 지정어 위치가 절의 가장자리 즉 보문소보다 높은 위치이지만, (4b)와 같

4) 이런 의미에서 주제화(topicalization)는 절 내에 있는 주제 가능 문장성분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선택하여 문두로 전치하고 주제라는 담화 기능을 할당하는 도출과정이다.

은 종속절에서는 보문소의 우변-계층적으로는 보문소의 아래-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주절과 종속절에 따라 이원화된 주제 명사구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인간 언어에 대한 최소주의 접근 방식과는 어긋난다. Rizzi(1997)는 절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발화힘 투사범주(ForceP)를 제안하고, 이 범주가 절 내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의 절 유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아래는 Rizzi가 제안한 구조를 간략히 줄인 것이다.

- (5) [_{ForceP} Force [_{TopP} Top]]

만약 이 구조를 활용하여 예문(4)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각각 도출할 수 있다.

- (6) a. [_{ForceP} Ø [_{TopP} *Al rey Yúceftres colpes le ovo dados*]]
 b. [_{ForceP} que [_{TopP} *aquello Julio Cesar lo auie castigado*]]

(6)에서 도출한 것처럼, 주절 (6a)에서는 Force가 내현적으로 투사되며, 종속절 (6b)에서는 외현적인 보문소를 통해 해당 범주가 투사되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값만 다를 뿐, 절의 구조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또한, TopP는 주절과 종속절에서 ForceP 아래에 위치하고, 일원화된 TopP의 지정어로 주제가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조 분석 하에서 모든 [Cl+T] 형태를 가진 복제된 명사구는 ForceP의 아래에 있는 주제 명사구라는 명확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중세스페인어에서도 현대스페인어와 같은 구조적 대칭성이 존재하므로, (5)에서 제시한 절의 구조는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에서 절의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Rizzi의 제안에 근거하여 통합한 구조의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중세스페인어에서 보이는 접어 대명사의 시제 동사 후치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5)의 구조는 좌변에 전치하는 명사구가 그 절의 주제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만, 시제 동사와

접어 대명사의 어순이 도치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역사언어학자들은 중세스페인어에는 Wackernagel 규칙⁵⁾이 존재하고 정형절의 맨 앞에 위치하는 주제 명사구는 절을 구성하는 문장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⁶⁾ 전통적인 시각에 따라 예문 (7a)를 분석하면, 주제 어구는 ForceP 외곽에 위치하고 Force는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최후수단의 원리가 적용되어 Wackernagel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순의 도치가 뒤따른 것이다. 이와 반대로, (7b)에서 Wackernagel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보문자 *quando*가 절의 맨 앞에 위치하여 외현적인 Force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어순을 그대로 도출한 것이다. 아래의 예에서 이런 분석을 잘 드러내고 있다.

- (7) a. *e la fija dieronla a criar a un hermano de so padre* (1270)
 [E *la fija* [Force $\emptyset$ [TP *dieronla a criar a un hermano de so padre*]]]
 b. *quando gela diera a criar*, (1471)
 [Force *quando* [TP *gela diera a cri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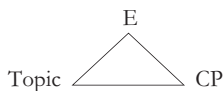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스페인어의 연산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두 가지 통사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를 담당하는 국면으로 좌변을 설정한 Chomcky와 Rizzi의 최근 주장들을 따르면서 중세스페인어를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필요했던 통사적 조건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전에, 접어 대명사의 시제 동사 후치를 유발하기 전 단계인 전치 접어 현상이 중세스페인어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5) Wackernagel 규칙은 접어 대명사가 문의 맨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a) *E dieronlo a su madre a criar*; (1313)

6) Banfield(1973)와 Emonds(1985), Aissen(1992) 등은 주제가 CP 외곽에 있는 E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관련 수형도는 다음과 같다.



- (8) a. *non* gelas deuen dar, (1284)
b. que *non* gelas quisieron guardar (1348)

예문 (8)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정사 *non*의 존재는 주절에서든 종속절에서든 전치에 필요한 충분조건이다. 마찬가지로 복제된 접어 대명사를 동반하지 않은 한정적인 직접목적어가 시제 동사 앞에 위치하면, 접어 대명사는 [CI+T] 어순만을 보이고 그 반대되는 후치는 결코 중세스페인어에서 보이지 않는다.

- (9) a. La mano le pidiera, (1400)
b. Su lengua le querría prestar para que hablasse presto. (1499)

다른 한 편으로, 시제 동사 앞에 비한정적인 명사구가 나타나는 조건에서도 접어 대명사가 시제 동사 앞에 전치함을 알 수 있다.

- (10) a. Mil cuchilladas *le* vi dar a mis ojos (1499)
b. y algo *le* tocaremos con las puntas por amedrentalle. (1492)

전치 접어 현상을 보여주는 예들을 살펴본 결과, 외현적인 보문사를 가지고 있는 종속절에서는 시제 동사에 후치하는 접어 대명사가 나타날 수 없어야 하지만, 중세스페인어에서는 이런 예문들이 보인다. 다음은 종속절에서의 이러한 후치 현상에 대한 예시이다.

- (11) a. que lo nuestro *tenémoslo* en salvo. (1240)
b. Di a fijos de Israel que *prendanse* unos blagos. (1200)

본 연구가 절의 좌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전치된 접어 대명사를 허용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후치한 접어 대명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근거하여, 중세스페인어의 구조에서는 Wackernagel 규칙 보다는 시제 동사의 좌변에 TopP을 위한 범주 외에도 다른 담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범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담화 관련 기능 범주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본 연구는 중세부

터 현대까지 복제된 접어 대명사를 가진 명사구가 담화 기능 중에서 주제 역할을 하며, 구조적으로는 ForceP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제 동사를 선행하는 다른 문장성분의 위치와 기능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복제된 접어 대명사의 위치를 활용할 것이다.

2. 담화에서의 중립어구(NeutP)

본 장에서는 좌변에 선행한 명사구 중에서 한정적 특성을 보이면서도 복제 접어 대명사를 동반하지 않은 명사구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다룬다. 이들 명사구가 이동할 수 없는 위치는 ForceP의 바로 아래에 매핑된 TopP이다. 왜냐하면, 이 위치는 접어 복제한 한정명사구가 담화 주제가 되기 위해 이동해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먼저 복제 접어 대명사를 동반하지 않은 한정명사구는 반드시 TopP의 아래에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을 중세스페인어의 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12) a. los dozientos marcos al rey los soltó. (1140)
b. Mio Cid, *al rey* las manos *le* besó: (1140)

본 연구는 예문 (12)의 한정명사구 ‘al rey’와 ‘las manos’가 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Rizzi가 제안한 담화 관련 기능 범주 중 하나로 이동한 것인지를 밝혀야만 한다.

중세스페인어에서는 한정명사구가 직·간접 목적어이고 좌변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복제된 접어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예문들이 많다.

- (13) a. a mí lo dizen, (1140)
b. maguer el fecho non vieron, (1300)

예문 (13)에서는 한정명사구인 간접목적어 ‘a mí’와 직접목적어 ‘el fecho’가 접어 대명사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 통사론적인 도출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명사구의 좌변이동은 현대스페인어에서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접어 복제를 동반한다.

Fontana(1993)와 Zubizarreta(1998)는 이 두 시대 간의 통사적 차이를 TP의 지정어가 보이는 매개변인 값의 차이로 설명한다. 중세스페인어에서 TP의 지정어에는 복제 접어 대명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정명사구가 이동해 갈 수 있는 반면에, 현대의 경우에는 형태 통사적으로 접어 대명사의 복제를 동반한 한정명사구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TP의 지정어 위치로 직·간접목적어가 이동하기 때문에 접어 대명사 복제가 일어나지 않은 도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주의 문법의 틀 내에서, TP로의 이동은 논항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어 위치에 있는 명사구가 주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지정어-핵(SPEC-HEAD) 관계로 점검하는 연산 과정이 뒤따르게 되고, 예문(13)에 있는 선행 명사구 ‘a mí’와 ‘el fecho’는 주격이 아닌 목적격을 할당받고 있어서 T의 지정어로 이동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접어 복제가 없는 전치 한정명사구는 T의 지정어로 논항이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 논항의 이동이 대안적 도출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어와 로망스어에 대해 Rizzi(2014b)가 제시한 기준적 배치구조를 적용하여 접어 복제가 없는 전치 한정명사구를 설명할 것이다.

절의 좌변에는 여러 담화 관련 기능 범주가 수의적으로 도출되지만, 그중에서 TopP는 복제된 접어 대명사의 부재로 인해 이동의 후보지에서 탈락한다. 다른 담화 관련 범주인 초점범주(FocP) 또한 이동의 후보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초점은 본질상 한정명사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으로 Rizzi의 기준적 배치에서처럼 또 다른 TopP범주를 가정할 수 있다. 담화에서 초점과 달리 여러 주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의 예문 중에서 (12b)를 분석해보자.

(14) [_{TopP} *al rey* [_{TopP} *las manos* [_{TP} *le besó*]]]

한 문장에는 두 개의 주제어가 담화 층위에서 허용될 수 있어서 (14)와 같은

절의 구조 분석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각각의 주제어를 포함한 두 TopP가 상반된 통사적 특징을 보임으로써 절의 연산 과정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예를 들어, *al rey*를 포함한 TopP는 복제 접어 대명사 'le'를 동반해야만 하지만, *las manos*를 가진 TopP는 그 복제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접어 대명사의 복제 없이 좌변에 선행하는 한정명사구를 담화 관련 주제나 초점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서 새로운 담화 관련 투사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Ordóñez(2000)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어순이 VOS인 경우에 주어는 초점화되고, VSO일 때는 주어가 중립(neutral)의 속성을 가진다고 한다.

- (15) a. Quiere a Ana Juan. (VOS)
b. Quiere Juan a Ana. (VSO)

(15a)의 예문은 주어 Juan이 초점화되어 그 의미는 Pedro가 아니라 Juan이 Ana를 좋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15b)에서는 앞의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Juan이 Ana를 좋아한다는 언급만 하고 있다.

Costa(1998)는 담화 층위에서 신정보는 초점이 되어야 하고 구정보는 주제가 되거나 비 초점(unfocused)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6) a. O que é que o Paulo fez?
what did Paulo do
b. O Paulo partiu a janela.
Paulo broke the window (Costa 1998, 311)

그가 제시한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16b)의 대답에서 주어 'Paulo'는 구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어가 아니다. 초점은 더더욱 아니다. Costa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담화에서 주제도 될 수 없고 초점도 될 수 없는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Ordóñez의 용어를 빌리자면- 담화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담화 역할에 관한 관심은 Lambrecht(1994)의 저서에서도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문의 주어는 주제의 성격이 강하고 목적어는 초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주제로 언급되려는 목적어와 초점화되려는 주어는 중립적인 명사구의 상태에 머무르는 담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담화 역할에 관해서 과거에 제안된 주장들을 종합하여, 접어 복제가 없는 선행하는 한정명사구를 담화 층위에서 중립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간주하고, 이에 해당하는 중립기능범주(NeutP)를 설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 (17) [_{ForceP} Force [_{TopP} Top [_{NeutP} Neut [_{TP} T]]]]

이 절의 구조에 접어 복제가 없는 선행하는 한정명사구를 포함한 예문(12b)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18) [_{ForceP} Ø [_{TopP} al rey [_{NeutP} las manos [_{TP} le besó]]]]

NeutP를 중세스페인어의 담화 관련 구조에 설정함으로써 접어 복제된 선행 한정명사구의 위치와 접어 복제가 없는 선행 한정명사구의 위치를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전자는 주제라는 담화 역할을, 후자는 중립이라는 담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통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게다가 선행하는 한정적인 주어가 어떤 담화 역할을 하는지도 NeutP의 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19) a. *yø me quiero ir de aquí e* (1400)
 [_{ForceP} Ø [_{NeutP} *yø* [_{TP} *me quiero ir de aquí e*]]]
 b. *yø quíerolas dezir luego*, (1330)
 [_{ForceP} Ø [_{TopP} *yø* [_{TP} *las t_i dezir luego*]]]

(19a)의 주어 '*yø*'는 NeutP의 지정어로 이동해 있고, (19b)의 주어 '*yø*'는 TopP

에 이동해 있다. 전자는 담화 상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후자는 주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 추가로 다룰 다른 담화 관련 기능 범주에 근거하여, (19b)의 시제 동사는 NeutP보다 더 상위의 위치인 어느 범주에 부가될 수 있어서 후치 접어 현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룰 것이다.

3. 담화에서의 초점(FocP)

Halliday(1967)와 Chomsky(1970), Jackendoff(1972) 등은 담화를 전제(presupposition)와 초점(focus)으로 나눈다. 전자는 화자가 청자와 공유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후자는 화자가 청자와 공유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Dahl(1976)에 따르면, 문장은 구정보와 신정보를 포함하고, 이런 신·구정보는 통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문장요소에 의해서 구분된다.

Horvath(1981)는 헝가리어, 바스크어, 한국어, 소말리아어, 중세 로망스어 등을 어순 분석한 후에 형태 통사론적으로 초점범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담화에 신정보를 전하는 비 한정명사구, 총칭 명사, 부정명사, Wh-구 등을 초점에 적합한 문장성분으로 제시한다.

Rizzi(1997)은 절의 좌변에 나오는 선행하는 문장 성분들을 담화 요소로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담화 관련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20) [Force [Top* [Foc [Top* [Fin [_{IP} ...]]]]]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절에는 여러 주제가 가능하지만, 초점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초점의 담화적 특성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양화사나 Wh-구, 비 한정명사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세스페인어의 예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FocP를 TopP와 NeutP의 중간 위치에 배치하게 되었다.

(21) [_{ForceP} Force [_{TopP} Top [_{FocP} Foc [_{NeutP} Neut [_{TP} T]]]]]

이런 절의 배치구조에 따르면, 선행하는 비 한정명사구가 TP 내에서 FocP로 이동해 갔음을 알 수 있다.

- (22) a. Mil cuchilladas *le* vi dar a mis ojos:(1499)
 [_{ForceP} Ø [_{FocP} Mil cuchilladas_i [_{TP} *le* vi dar *t_i* a mis ojos]]]
 b. si alguna cosa déstas la natural necesidad les fuerza a hazer, (1499)
 [_{ForceP} si [_{FocP} alguna cosa déstas_i [_{NeutP} la natural necesidad [_{TP} les
 fuerza a hazer *t_i*]]]]

(22)의 분석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화사구는 FocP로 이동하고,⁷⁾ 초점화된 비 한정명사구도 FocP로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 한정명사구가 담화에서 초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TopP와 NeutP의 중간 위치로 이동함을 형태 통사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23) a. E si armas les auien dadas que aun les fincaran algunas a ellos. (1270)
 [_{ForceP} si [_{FocP} armas [_{TP} les auien dadas ...]]]
 b. ¿quién vos lo podrié contar? (1140)
 [_{ForceP} Ø [_{FocP} quién [_{TP} vos lo podrié contar]]]
 c. que nada te tornes por sienpre jamas. (1422)
 [_{ForceP} que [_{FocP} nada [_{TP} te tornes por sienpre jamas]]]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세스페인어의 절 구조 분석에 따르면, 예문(23)에 있는 문장들은 전치 명사구의 형태적 특성과 그것이 가리키는 위치를 통해 좌변에 초점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본 장을 종합하면, 중세스페인어에서 좌변에 나타난 전치 명사구를 형태 통사론적으로 주제와 초점, 중립어구로 구분할 수 있는 절의 구조를 확립했지만, 좌변에 고립되어 나타나는 접어 대명사가 어느 담화범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7) Miyagawa(2004)는 의문사 이동, 초점이동, 일치이동 그리고 어순뒤섞기가 궁극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III. 좌변에 나타난 ‘고립’ (Interpolated) 접어 대명사

현대스페인어에서는 접어 대명사가 좌변에 고립된 채로 시제 동사와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스페인어에서는 그 어순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좌변의 어느 범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 예문을 보자.

- (24) a. que les este buen mandado dixo Moysen. (1275)
 [_{ForceP} que [_{TopP} les + Top° [_{NeutP} este buen mandado [_{TP} dixo Moysen]]]]
 b. e tornadlo al que vos el pan vendió (1275)
 [_{ForceP} que [_{TopP} vos + Top° [_{NeutP} el pan [_{TP} vendió]]]]
 c. quando lo non quisieran fazer. (1270)
 [_{ForceP} quando [_{TopP} lo + Top° [_{NegP} non quisieran fazer]]]

접어 대명사는 본질상 한정성과 특정성을 지니고 있어서 화자와 청자가 그 정보를 공유한다. 예를 들면, 예문(24)에서 ‘les’와 ‘vos’, ‘lo’가 지시하는 대상을 화자와 청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 성분들은 구정보에 속하고 담화 층위에서 FocP로 이동할 동기가 없다.

아시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구정보는 NeutP와 TopP에 이동이 가능함을 -복제 접어 대명사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하는 한정명사구를 통해 구조적으로 논증해 왔다.

예문(24)을 절 구조 (21)에 적용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NeutP는 이 고립된 접어 대명사가 이동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문 (24b)에서처럼, NeutP의 지정어 위치에는 중립 어구인 ‘el pan’이 먼저 안착해 있고, 그보다 상위의 위치에 접어 대명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접어 대명사는 중립화된 명사구와는 연쇄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Neut] 자질을 형태 통사적으로 공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접어 대명사가 이동해 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지는 TopP이다. 먼저 주제화된 명사구와 접어 복제를 통해 형태 통사론적인 일치를 유지함으로써 [+Top] 자질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특정성과

한정성을 지닌 접어 대명사가 주제화되기 위해 TopP의 핵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한다.

위의 분석에서 고립 접어 대명사가 TopP의 핵에 부가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중세스페인어 구조 분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절의 좌변에 투사된 TopP에 어떤 한정명사구도 이동해 가지 않았고, 이 범주가 가진 자질 [+Top]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자질을 공유한 접어 대명사의 이동을 최후수단으로써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이 도출과정은 경험적으로도 참임이 입증된다. 그 이유는 고립 접어 대명사의 좌측에 한정명사구가 나타난 문장이 본 연구가 접근한 코퍼스(CDH)에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립 접어 대명사의 좌측은 항상 ForceP에 위치한 외현적 보문소가 병합되어 있었다. 아래의 비정형절 구문에서도 이런 도출과정을 검증해 주고 있다.

(25) maldiziendo su conciencia por la non creer. (1438)

[_{ForceP} por [_{TopP} la [_{NegP} non creer]]]

고립 접어 대명사가 TopP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얻는 분석의 이점은 아래의 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6) a. que lo omne pudiesse asmar. (1270)

[_{ForceP} que [_{TopP} lo + Top^o [_{FocP} omne [_{TP} pudiesse asmar]]]]

중세스페인어의 어순을 보면, 고립 접어 대명사와 시제 동사 사이에 한정명사구나 비 한정명사구가 나온다. 이 예문에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양화사 ‘omne’가 있고, 이 문장성분은 FocP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현대스페인어에서 고립 접어 대명사가 도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TopP가 여전히 스페인어 절의 구조에서 주제화의 여부에 따라 투사되기 때문이다. Chomsky(2000, 2001)에 따르면, 최후수단의 원리로 인하여 어떤 도출과정은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즉,

외현적 이동은 언어 표현 EXP의 PF에 그 발음의 효과가 있어야만 하고, 내현적 이동은 LF에서 해석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스페인어에서 접어 대명사의 주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중세와 현대스페인어의 좌변에 투사되는 기능 범주의 차이로 인해서가 아니라, PF-접합층위에서 동사와 접어 대명사의 소리에 대한 정보가 중세스페인어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절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형태 통사론적으로는 절의 좌변에 TopP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두 시대 간의 구조적 차이는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PF-접합층위에서는 중세스페인어의 접어 대명사가 동사 이외의 문장성분과 더불어 접어화가 가능하지만, 현대스페인어에서는 동사와의 접어화만 허용하기 때문이다.⁸⁾

IV. 후치 접어 대명사 어순

중세스페인어의 어순은 좌변에서 현대스페인어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시제동사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TP의 좌변에 주제와 초점, 중립의 담화 관련 기능 범주가 필요함을 증명해 왔다. 아래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스페인어의 좌변에 생성된 담화 관련 구조이다.

(27) [_{ForceP} Force [_{TopP} Top [_{FocP} Foc [_{NeutP} Neut [_{TP} T]]]]]

위의 담화구조에서 TopP를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주제는 후행하는 서술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여러 개의 주제가 가능하다.⁹⁾

8) 이 주장 외의 다른 형태 통사론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무의미하다.

9) Rizzi(1997)는 다음과 같이 이탈리아어를 분석한다.

a) Credo che, al presidente, QUESTO, nella riunione di domani, gli dovrete dire ‘I believe that, to the president, THIS, in tomorrow’s meeting, you should say to him’
→ [_{Force} [_{Top*} [_{Foc} [_{Top*} [_{Fin} [_{IP} ...]]]]]]]

담화 관련 기능 범주의 어순이 언어의 매개변인 값에 따라 다름을 시사해 주고 있다.

(28) El rey a los infantes las manos les tomó.(1140)

[_{ForceP} Ø [_{TopP} El rey [_{TopP} a los infantes [_{NeutP} las manos [_{TP} les tomó]]]]]

복제 접어 대명사를 공유하면서 좌변으로 이동한 한정명사구 ‘a los infantes’가 주제임이 명확하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명사구 ‘las manos’는 중립 어구이다. 그리고 화자는 한 문장 내에서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 ForceP와 TopP 사이에 투사될 수 있는 유일한 담화범주는 TopP뿐이기 때문에, 절의 맨 좌측에 있는 한정명사구 ‘El rey’를 주제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¹⁰⁾ 이에 따라 중세스페인어의 절 구조를 다음과 같이 확장할 수 있다.

(29) [_{ForceP} Force [_{TopP} Top* [_{FocP} Foc [_{NeutP} Neut [_{TP} T]]]]¹¹⁾

이런 지도제작방식에 근거한 절의 구조를 통하여, 중세스페인어에서 주제는 여러 개일 수 있고 모든 가능한 주제가 초점보다 더 상위에 -어순으로는 더 좌측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중세스페인어의 절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시제 동사 뒤에 나타나는 접어 대명사의 위치에 대해 파악해보자.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30) a. vyno a Safagunt e fallola çercada; dioles un grand torneo, (1250)

b. Et el conde respondiól que a omne del mundo non plazdría más
que a él folgar et estar vicioso (1325)

위의 두 문장은 중세스페인어의 접어 대명사가 절의 맨 앞(혹은 좌측)에 올 수 없다는 Wackernagel 규칙을 따르는 근거로 지금까지 인용되었다. 예문 (30b)에서는 맨 앞에 주제어구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제가 보문소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어 대명사가 절의 맨 앞에 나타날 수밖에

10) Rizzi(1997)가 제기한 지도 제작 방식(The Cartography approach)에 따르면, 주어진 언어에서 기능 범주의 특정 순서와 내용은 보편적인 원칙과 언어 고유속성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11) 여기서 Top*은 하나 이상의 주제가 도출될 가능성을 의미함.

없는 문법적 환경에서 이를 막기 위해 시제 동사가 절의 맨 앞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외현적 보문소를 가진 절 내에서도 후치 접어 대명사 어순이 중세스페인어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모순에 직면하는 것이다.

- (31) a. assi quel contecio una uez. que un su huesped presentol a la mesa
olio en sus escudiellas en lugar dotro maniar preciado(1270)
b. que lo nuestro tenémoslo en salvo.(1240)
c. Di a fijos de Israel que prendanse unos blagos.(1200)

후치 접어 대명사가 Wackernagel 규칙을 따르는 현상이면, 절의 맨 앞에 외현적인 보문소가 있는 종속절 내에서는 이 문법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종속절 내에서도 후치 접어 대명사가 나타난다. 따라서 Wackernagel 규칙으로 시제 동사와 접어 대명사의 도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중세스페인어이든지 현대스페인어이든지 무표적 어순은 [CI+T] 형태이다. 이 어순에서 시제 동사가 상위의 담화 관련 기능 범주로 이동한다면, 접어 대명사와 시제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명해진다.

지금까지 접어 대명사와 한정명사구에 국한하면서 좌변에 전치된 문장성분을 분석하였고, 그 성분이 담화 관련 범주로 이동한 것임을 보여왔고, 접어 대명사의 후치(enclitization) 또한 자연언어의 연산 과정에 의해서 시제 동사의 직접적인 상승 이동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잘 반영한 예시(3)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 (32) [sabía_i [_{TP} la t_j tan bien mostrar a los que se pagavan]]

이 예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분명한 도출과정은 시제 동사 ‘sabía’가 TP의 좌변에 투사된 담화 관련 기능 범주 중 하나로 이동해 간다는 것이다. 첫 번째 후보 기능 범주는 주제범주이지만 주제를 표현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은

한정명사구이어야 하므로, 시제 동사는 형태 통사론적으로 주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중립 범주에로의 이동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립 어구 또한 한정명사구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도출은 FocP로의 이동이다. 정희자(2008)에 따르면, 화자는 담화에서 현재시제와 과거시제의 확장된 개념을 토대로¹²⁾ 공손성, 초점화, 관련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현재시제 또는 과거시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시제 기능에 의하면, 신정보는 구정보보다 정보 가치가 높으므로 화자는 신정보를 초점화하여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구정보는 과제 시제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제시한 예시를 보자.

- (33) Did yo know that the newspaper says Creece declared war on Turkey?
(정희자 2008, 263)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The Times*에 실린 기사를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그 기사를 초점화할 목적으로 현재시제 ‘says’를 사용하고 있다.

Zubizarreta(1999)도 주제와 초점을 다루면서 시제 동사가 초점인 경우의 예시를 보여준다.

- (34) El libro, [[_F Juan] [lo [_Fcompró]]]¹³⁾
(Zubizarreta 1999, 4230)

이처럼 한정명사구와는 달리 동사에는 초점기능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있어서, 시제 동사는 주제나 중립 어구가 될 수 없지만, 초점은 가능하다. 중세스페인어에 이 가능성을 적용하여 보자.

12) 시간 지시와 관련지으면 현재시제는 가까움을 의미하고 과거시제는 멀음을 의미한다. 이런 원근개념이 확장되어 현재시제는 친밀성, 즉시성, 직접성, 확실성과 같은 개념을 나타내며, 반대로 과거시제는 거리감, 망설임, 간접성, 일시성 등의 개념을 나타낸다.
13) 여기서 주어 ‘Juan’은 초점의 부분이다. 즉 ‘Juan compró’라는 사건이 신정보로 초점화된 것이다.

(35) [_{FocP} sabía + Foc^o [_{TP} la t_i tan bien mostrar a los que se pagavan]]

시제 동사 ‘sabía’는 핵 Foc에 부가이동함으로써 핵-핵 관계를 형성한 후에 초점 자질[+Foc]을 점검받는다. 그리고 중세스페인어의 경우에는 시제 동사에 할당된 초점자질에 대한 점검이 외현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현대스페인어의 경우에는 시제 동사가 지닌 초점자질의 매개변인 값의 변화로 인해서 해당 자질의 점검이 내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제 동사에 후치한 접어 대명사 어순이 나타나지 않고 무표적인 어순[CI+T]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중세스페인어와 현대스페인어에서 분명한 어순의 차이를 보이는 시제 동사의 좌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장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세의 접어 대명사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핵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현대스페인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생소한 어순은 중세스페인어 구조 내의 좌변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음을 형태 통사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본 연구는 Rizzi의 기준적 배치구조를 중세스페인어의 문장들에 적용하였고, 중세와 현대의 접어 대명사와 좌변으로 이동한 문장 성분들이 보여주는 어순의 차이는 두 시대 간 매개변인화된 담화 관련 기능 범주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다음과 같이 형태 통사론적으로 입증하였다.

첫째, 중세부터 현대까지 복제된 접어 대명사를 가진 명사구는 담화 기능 중에서 주제 역할을 하며, 구조적으로는 ForceP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NeutP를 중세스페인어의 담화 관련 구조에 설정함으로써 접어 복제된 선행 명사구의 위치와 접어 복제가 없는 선행 명사구의 위치를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하였으며, 전자는 주제라는 담화 역할을, 후자는 종립이라는 담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형태 통사적으로 구별하게 하였다.

셋째, 담화에 신정보를 전하는 비 한정명사구, 총칭 명사, 부정명사, Wh-구

등이 초점에 부합하는 문장성분임을 논한 후에, TopP와 NeutP의 중간 위치에 배치한 FocP를 통해 입증하였다.

넷째, 고립된 복제 접어 대명사가 주제화된 명사구와 [+Top] 자질을 공유하는 데에서 착안하여 현대스페인어와 다르게 중세스페인어에서는 TopP의 핵에 부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다섯째, 시제 동사가 문장 내에서 초점화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초점범주의 핵 Foc에 부가이동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를 종합한다면, 중세스페인어에서 좌변에 나타난 접어 대명사와 명사구의 형태적 특성과 그 문장 성분들이 보이는 어순에 근거하여 담화 관련 주제와 초점, 중립 어구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타 영역에서도 중세스페인어의 담화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뒤따라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대익(2015), 「최소주의 관점의 고대영어어순고찰」, 새한영어영문학, Vol. 57, No. 3, pp. 169-188.
- _____(2016), 「명찰이론에서의 동사이동과 국면」, 새한영어영문학, Vol. 58, No. 2, pp. 153-171.
- _____(2017), 「고대영어 매입절 동사구 어순과 명찰알고리즘」, 언어과학, Vol. 2, No. 1, pp. 1-20.
- 김준한(2005), 「스페인어의 전치주어 연구」, 스페인어문학, Vol. 34, No. 1, pp. 49-64.
- 박영미(2005), 「스페인어 접어 인상 연구」, 스페인어문학, Vol. 36, No. 3, pp. 73-87.
- 심상완(2019), 「스페인어 접어 좌향 전위 구문이 보여주는 A'-이동의 전형적 특징과 비전형적 특징에 대한 통합적 분석」, 스페인어문학, Vol. 90, No. 1, pp. 100-124.
- 양승관(2008), 「스페인어 담화 단위 문법 분석의 필요성 고찰」, 스페인어문학, Vol. 46, No. 1, pp. 79-98.

- 임흥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희자(2008), 『담화와 문법』, 한신문화사.
- 조은영(2005), 「중세 스페인어 종속절에 나타난 전접어 현상(proclisis)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문학, Vol. 36, No. 3, pp. 111-126.
- Banfield, Ann(1973), “Narrative Style and the Grammar of Direct and Indirect Speech”, *Foundations of Language*, Vol. 10, pp. 1-39.
- Barbosa, Pilar(1996), “Clitics Placement in European Portuguese and the Position of Subjects”, in Aaron L. y Arnold M. Zwicky(eds.), *Approaching Second: Second Position Clitics and Related Phenomena*, California: CSLI.
- Bonet, Eulàlia(1995), “Feature Structure of Romance Clitic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NLLT)*, Vol. 13, pp. 607-647.
- Cano Aguilar, Rafael(1981), *Estructuras sintácticas transitivas en el español actual*, Madrid: Gredos.
- Chomsky, Noam(1970),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Chomsky(ed.),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The Hague Mouton.
- _____(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_____(2000), “Minimalist inquiries”, In Martin, R., Michaels, D., Uriagereka & J. (eds.), *Step by step: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Howard Lasnik,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2005), *On Phase*, Ms. MIT.
- Cinque, Guglielmo(1990), *Types of A' dependencies*, Cambridge: MIT Press.
- Costa, João(2000), *Portuguese Syntax, New Comparative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esing, Molly(1990), “Verb Movement and the Subject Position in Yiddish”, *NLLT*, Vol. 8, pp. 41-79.
- Fernández Soriano, Olga(1993), *Los pronombres átonos*, España: Taurus.
- Fontana, Josep M.(1993), *Phrase Structure and the Syntax of Clitics in the History of Spanish*,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Pennsylvania.
- Fukui, Naoki(1993), “Parameters and Optionality”, *Linguistic Inquiry*, Vol. 24,

pp. 399-420.

- Halpern, Aaron L. y Arnold. M. Zwicky(1996), *Approaching Second: Second Position Clitics and Related Phenomena*, California: CSLI.
- Kiss, Katalin É.(1995),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yagawa, Shigeru(2004), “On the EPP”, *Proceedings of the EPP/Phase Workshop*, MIT.
- Jackendoff, Ray y Peter Culicover(2003), “The Semantic Basis of Control in English”, *Language*, Vol. 79, No. 3, pp. 517-556.
- Kayne, Richard(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 Cambridge, Mass.: MIT Press.
- Lapesa, Rafael(1968),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calpe.
- Menéndez Pidal, Ramón(1944), *Texto, gramática, vocabulario, Cantar de Mio Cid*, Madrid: Espasa-Calpe.
- Ordóñez, Francisco(2000), *The Clausal Structure of Spanish: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y London: Garland Publishing.
- Pollock, Jean-Yves(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Vol. 20, pp. 365-424.
- Rivero, María Luisa(1986), “Parameters in the Typology of Clitics in Romance and Old Spanish”, *Language*, Vol. 62, pp. 774-807.
- _____(1993), “Long Head Movement vs. V2, and Null Subjects in Old Romance”, *Lingua*, Vol. 89, pp. 217-245.
- Rizzi, Luigi(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IT Press.
- _____(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Elements Grammar*, Kluwer Academic Publishers.
- _____(2004), *The estructure of CP and IP: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 Vol. 2, New York: OUP.
- _____(2014b), “Some Consequences of Criterial Freezing”, In Peter Svenonius (ed.), *Functional Structure from Top to Toe: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ravis, L.(1984), *Parameters and Effects of Word Variation*, tesis doctoral, Cambridge: MIT Press.
- Treviño, Esthela(1994), *Las causativas del español con complemento infinitiv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Uriagereka, Juan(1995), “Aspects of the Syntax of Clitic Placement in Western Romance”, *Linguistic Inquiry*, Vol. 26, pp. 79-123.
- Wanner, Dieter(1991), “The Tobler-Mussafia Law in Old Spanish”, *Current Studies in Spanish Linguistic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Zubizarreta, María Luisa(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MIT Press.

신태식

고려대학교
shintaeshig@korea.ac.kr

논문투고일: 2023년 3월 20일
심사완료일: 2023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17일

A Study on the Left Periphery of Medieval Spanish

Shin, Tae-Shig

Korea University

Shin, Tae-Shig (2023), "A Study on the Left Periphery of Medieval Spanis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1), 1-26.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left periphery of a clause has been actively studied since the mid-1990s, with Rizzi (1997) and others at the forefront of this research trend.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a series of functional categories such as Top, Foc, Q, etc., has been empirically shown to be mapped optionally onto the left periphery of a clause through an computational procedure. Our research starts from the basic assumption that these discourse functions also act as a crucial factor in deriving a specific word order in Spanish. And this study will seek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functional categories that are merged in the left periphery of a clause, which underlie the differences in word order observed between medieval and modern Spanish. Through an intuitive search of medieval Spanish data, we have found that the [Cl+T] order is an unmarked, economical, and indispensable word order in both medieval and modern Spanish.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word orders that deviate from this basic structure as part of the discourse-related derivation process. In order to prove this, our research will show that the differences in word order between medieval and modern Spanish, as evidenced by the movement of clitic pronouns and sentence constituents to the left periphery based on Rizzi's criterial configuration, are due to the differences in discourse-related functional categories that have been parametrized between the two periods.

Key words Left periphery, Clitic Left Dislocation, Theme, Focus, Neutral